

홈 > 불교

포교종책 워크숍 '한국불교 미래, 포교의 길을 찾다'

박영록 기자 | 입력 2021.10.14 17:33 | 수정 2021.10.14 23:36 | 댓글 0

가 가



포교 현장·비전탐색 토크콘서트, 14일 열려...삼보사찰 천리순례 중 의미 더해



영상이 뜨지 않는 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앵커

삼보사찰 108 천리순례단이 경남 창녕에서 조계종 포교원, 중앙종회와 함께 '포교종책 워크숍'을 14일 열었습니다.

종단 포교정책의 틀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부산BBS 박영록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신뉴스

- 불교 | 불교 종립 광주 정광중, '로터스관' 개관
- 문화·스포츠 | 한·중 도시·관광 교류 활성화 다...
- 정치 | 문대통령 "한국, 글로벌 백신생산 허브...공...
- 정치 | 문 대통령, 공수처 검사 8명 임명만 재가.....
- 전국 | '선을 넘다'...제 12회 광주 여성영화제 내...

포토뉴스



인기뉴스

- 1 우상호 "故 노태우, 공과 평가는 엇갈리지만 역사
- 2 부산, 윤석열-홍준표 지지 선언 대결 속... '줄세우
- 3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 '국가장' 으로 ... 정재계
- 4 [코로나19]부산 코로나 19 신규 확진 49명
- 5 [코로나19] 접종완료자 총 3천670만9천777명
- 6 깊어가는 가을, 도심공원에서 코로나이후 일상회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포교정책 워크숍'은 언론에서 조명한 새로운 포교 방법과 사례 소개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현재 달라지고 있는 포교 현장에 대한 토크콘서트가 진행됐습니다.

지역 상생의 길을 열어가고 있는 구례 화엄사, 명상으로 미래 희망을 키우고 있는 김해 동림선원, 도심에서 문화포교의 꽃을 피우고 있는 부산 대운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포교정책 워크숍 2부 순서로 진행된 '달라지고 있는 포교현장' 사례 발표 모습.

[인서트/덕문스님/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 주지]

자연 복지, 문화 복지라고 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때, 그것을 잘 활용하게 되면 위기가 긍정적인 말로 회복되는, 포교의 역량이 더 나아지는...

또한, 포교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현가능한 미래 포교비전을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교구 본사인 봉선사와 고운사가 화상으로 참여했고, 중앙종회, 포교원, 중앙신도회, 포교사단 등과 함께 '수행의 길, 포교의 길'을 찾아 나갔습니다.

'포교활성화를 위한 종단과 중앙종회 차원의 과제', '뉴미디어 강화를 위한 포교원의 정책 방향', '신도회와 신행단체들의 역량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포교정책 워크숍 3부 순서로 진행된 '수행의 길, 포교의 길' 토크콘서트 모습.

[인서트/초격스님/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 주지]

포교에 대한 관심, 거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적극적인 포교가 될 수 있겠끔 많은 프로그램들이 개발됐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상월선원 만행결사 삼보사찰 108 천리순례' 기간 중 열려 의미를 더했습니다.

8 부산중기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 오늘부터



BBS 칼럼

- 전경윤의 '세상살이'
- 전영신의 '시선'
- 신두식의 '공감노트'
- 배재수의 '크로키'
- 이현구의 '스윗 스팟'
- 선임기자 칼럼

월 1만원 이상, 방송포교후원功德주 모임

만공회

가입문의 **1855-3000**

ARS후원 **060-800-8000**
(한 통화 5천원)



포교종책 워크숍 입재 모습.

[인서트/호산스님/상월선원 삼보사찰 108 천리순례 총도감]

회주 스님께서는 첫째도 포교요, 둘째도 포교다. 포교를 하는 길이 불교가 중흥되는 것이라든 것을 우리 순례단 뿐만 아니라, 모든 사부대중께 간절하게 정말로 호소하시는 겁니다.

한편, 이번 워크숍을 공동 주최한 포교원은 이날 논의된 사항들을 수렴해, '제8대 포교원 포교종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포교원장 범해스님 개회사 모습.

[인서트/범해스님/조계종 포교원장]

각 분야의 포교의 일꾼들이 함께 모여 이와 같은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사부대중이 간절히 원했던 불교의 모습입니다.

BBS뉴스 박영록입니다.



박영록 기자 pyl1997@bbsi.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추천
0



반대
0

당신만 안 본 뉴스



BBS NEWS

포교종책 워크숍 '한국불교 미래, 포교의 길을 찾다'



가 가



윤석열 '개사과' 촬영장소 논란..."해명 석연치 ...
강석호 "김종인, 윤석열 지지하겠다는 생각 바...
[배재수의 크로키] '위드 코로나'와 남산의 가을
[속보] 누리호 위성분리성공
[박경수의 아침저녁 클로징] 누리호 '미완의 성...



기사 댓글 0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
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0 / 400

주요기사



불교 종립 광주 정광중,
'로터스관' 개관



한-중 도시·관광 교류
활성화 다짐...2021 한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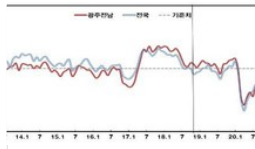
문대통령 "한국, 글로벌
백신생산 허브...공평신



문 대통령, 공수처 검사
8명 임명안 재가...내일



'선을 넘다'...제 12회 광
주 여성영화제 내달



광주전남 소비심리 2개
월째 상승...전달 대비

BBS NEWS

매체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저작권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BBS불교방송(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다보빌딩) | 대표전화 : 02-705-5114 | 팩스 : 02-705-5229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재수
제호 : BBS NEWS | 등록번호 : 서울 아 01259 | 등록일 : 2010-06-03 | 발행일 : 2001-09-01
발행인 : 박형수(중하) | 편집인 : 전경윤

BBS NEWS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BBS 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bbsi.co.kr

POWERED BY **NE**